

때가 왔다

히박국 2:1-4, 마가복음 1:1-15

최정웅 목사님

나이가 든 총각이 처녀를 소개받았는데, 나가 보니까 아이큐가 70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주 얼굴이 예쁘고, 섹시하게 생겼다. (웃음)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하나까 프로포즈를 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말을 듣고 생각을 하더니,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남자는 당연히 자기가 좋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안 한다고 하나까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다.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가문에 전통이 있는데, 우리는 가족끼리 결혼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이모는 이모부하고, 고모는 고모부하고 했는데 나만 외간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웃음) 이것은 방송에서 빼 달라. (웃음) 유머가 점점 힘들다. (웃음) 그래도 잘 안 웃으시니까, 이 다음에는 더 웃긴 것을 찾아보겠다. (웃음)

오늘은 성령강림절이다. 가정의 달로 볼 때는 또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다.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시켜서 뿌리내리게 해야 하는데, 이 일을 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 그래서 본문 말씀대로, 성령충만이 우리에게 내려와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성령 임한 다음에 사역하셨다.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특히 선생님들이, 성령충만과 권능 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한다. 사사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묵상하려고 한다. 오늘 첫 시간인데, 마가복음 1장을 묵상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참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한다.

지금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조선업이 대단히 어려워진 것 같다. 울산과 거제 쪽이 굉장히 힘들다고 한다. 강남 못지않게 잘 살던 곳인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경제에 위기가 오지 않겠는가 하고 사람들이 모두 염려하고 있다. 고도성장을 할 때는 사람들의 생각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차 있었는데, 지금은 뭘 해도 잘 안 된다고 한다.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화자 되고 있고, 많은 청년들과 서민들은 정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급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다.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에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다. 곳곳에서는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려고 하나까, 미래가 안 보이는 암울한 때가 된 것으로 사람들은 느끼고 있다. 이것은 오늘의 현상일 뿐 아니라, 본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시대에 속국이라는 위기가 왔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울한 시대다. 사실은 몇 십 년 후에 멸망하고, 큰 고통과 고난이 닥쳐올 때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시대 배경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국과 멸망의 때에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것이 마가복음 1:1부터 당당하게 선포되고 있는 복음이다. 마가복음 1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바란다.

1.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다.

제일 먼저는, 위기 시대에 살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1에 답이 나와 있다.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할 주제요 메시지다. 마가복음 1:1을 같이 한 번 읽어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답이다.

(1)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한다는 말씀인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

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원수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어 왔다. 살면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다가 정신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에 빠지게 된다. 지옥 배경 속에서 살면서 후손들까지 멸망에 빠지는 비극이 전개되었다. 이 문제를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나타나셨다는 말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생산법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사'라고 했다.

(2)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듣는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개는 강아지를 낳고 말은 망아지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는다. 사람은 사람을 낳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낳는가? 하나님을 낳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의 죄명이 참람죄였다. "내가 인간인데, 그것도 가난한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이데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냐는 것인데, 자기들은 몰랐지만 성경은 이미 말씀했다. 창세기 3:15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약속하셨다. 출애굽기 3:18에 피 제사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사야 7:14에, 하나님 떠나서 망해 버린 인간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는 길을 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언된 메시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다. 마태복음 1:18-25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다.

(3)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이 땅에 없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 요한복음 14:6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참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 버리셨다. 히브리서 9:12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다. 베드로전서 3:18, 히브리서 9:28에는 단번에 완성하셨다고 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인간을 구원하셨다. 히브리서 2:14은 분명히 말씀한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요한복음 3:16은 그래서 선포한다.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7:3은 말씀한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그 자체가 영생이다. 아시게 되기를 축원한다. 요한복음 19:30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완전하게 당당하게 다 이루셨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요한복음 5:24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17에는 말씀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살 수 있다. 제한도 없고 차별도 없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완전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무너뜨리는 축복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다 체험하기를 축원한다. 이미 체험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한다.

2.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부르고 계신다.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부르고 계신다.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복음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 14-1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다.

(1)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다. 이 ‘나라’ 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온 세계는 지금 흑암 나라 속에 있다. 사도행전 13, 16, 19장이라는 이상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을 잡고 있는 것이 영세 전에 나타난 존재다. 흑암, 공허, 허무가 그때 있었다.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 요한복음 12:31, 14:30, 16:11에는 세상 임금이 왔다고 하셨다. 그가 와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한다. 이 자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존재다. 이것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 자에게는 사도행전 1:3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가슴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주님이 지배하시는 곳이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배하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를 살게 되기를 축원한다. 마태복음 12:28에 말씀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바란다. 이 축복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통치다.

(2)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회개가 무슨 말인가? 잘못을 뉘우친다는 의미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 말이 아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정도를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 메타노이아(μετανοια)라는 말은 길을 바꾼다,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다. 지옥으로 향하던 내가 천국으로, 마귀를 따라가던 내가 예수님에게로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다. 거짓과 불의를 떠나서 의와 거룩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다. 제양으로 향하던 길을 돌이키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면 될 줄 안다.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길은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멸망의 길이다. 성공의 길 같지만 자기를 위한 멸망의 길이요, 네피림의 길이다. 원수의 지배 속으로 가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는 저주받는 길이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로 가겠다고 결단해야 한다.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멸망 길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 길에서 빨리 돌아서야 한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돌아서면 된다고 알려주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의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 두었다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해주는 것”이 전도다.

(3) 돌아서는 길이 무엇인가? 복음을 믿는 것이다.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믿음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주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만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말대로 깨끗함을 받았다. 마가복음 10:47에, 맹인 바디매오가 이 믿음을 가지고 외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붙쌍히 여

기소서!” 이 믿음을 가지면 된다. 이 믿음만 있으면 살게 된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12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다. 노력이나 공로가 절대로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로마서 1:16-17의 말씀이다.

(4)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명명한 증거를 주신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에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다. 그리스도를 만나고(만나시기 바란다), 붙잡으니까(붙잡으시기 바란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증거로 질병이 치유되었다. 오늘 질병이 떠나가게 되시기를 바란다. 그 증거로 귀신이 떠나가 버렸다. 오늘 여러분 마음 속에서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는다. 에베소서 2:7에,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다. 사도행전 1:8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다.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이름의 증거를, 오늘부터 체험하고 누리면서 증거하시기를 축원한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자. 오늘 15절이 결론이다. 오늘의 제목이다. 지금은 때가 찼다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전도서 3장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오늘 구약 본문에도, 정한 때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때를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어떤 때가 있는가?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의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받아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 때가 꼭 찼다.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주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우리 가정, 지역, 현장에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입장에서 말할 때는,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 전할 때가 된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바로 이 때다.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받는 것과 주는 것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을 직장에서도 하고, 길 가면서도 하고, 열차에서도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삶의 모든 곳에서 하시기 되기를 바란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내가 가진 복음을 받을 사람은 없는가, 복음 줄 상대는 없는가, 계속 찾아야 한다. 그러면 제자를 만나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한 주간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란다. 나에게 때가 임했는데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그 나라에 참여해야 할 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캠프 축제가 시작되어서 한 주간이 지났다. 여기 참여해야 할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캠프 현장, 학업과 생업의 현장에서, 모든 참사랑 가족들에게 사도행전 2:1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 받아야 할 사람도 전해야 할 사람도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그 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된다. 사랑하는 모든 참사랑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남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선포된, 때가 찬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자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받게 해 주시며, 믿는 자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누리는 캠프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대지 말고, 나의 삶 자체가 시간이며, 내가 선 자리가 전도 선교의 현장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누리다가 복음 받을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영원히 함께 일할 전도제자를 만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일어나고 제자가 발견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